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해인사 대장경판으로 빛을 보낸다.



합성하며 반아심경을 염송한다.



심세한 동적표현이 돋보이는 '사이버 붓다'의 합성하려는 장면. 합성후에는 반아심경을 염송한다.

# 3D 입체 동영상 '사이버 붓다' 탄생

## 본사 부다피아팀 경주예술대전서 공개



석굴암서 걸어가는 '사이버 붓다'.



연희대에서 일어선다.



연희대에서 걸어간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남을 저만치 우러러볼까마져 그날 전 새로 탈흔(脫痕)이 안된다면 한국인이 아니라, 어느덧 공손히 두손이 모이고 정례(頂禮)를 올리고 싶어지지 않는다면 불자가 아니라라. (박희진시인의 시 '석굴암 대불' 중에서)

통일신라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며 종교미술의 이상미를 구현한 최고의 석굴로 손꼽히는 석굴암 본존불(국보 제24호),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문화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석굴암 부처님이 사이버 공간에서 재탄생되었다. 이제까지 '사이버 가수' 등 사이버 인간이 여러 곳에서 제작되었지만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 사이버 캐릭터로 등장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현대불교신문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석굴암 본존불을 모델로 한 '사이버 붓다'를 3D 입체 동영상으로 제작해 4월30일~6월5

일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리는 99 불교 예술대전 '사이버 법당'에서 공개했다. 화면 보호기(Screen Saver)로도 제작돼 일반인에게 공개될 '사이버 붓다'는 석굴암 본존불이 1300년의 선정에서 깨어나 역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고려대장경에 빛을 쏘아 대장경판각이 '현대불교신문'으로 변화된다는

연희대에 앉아 있던 부처님이 서서히 일어선다. 좌대가 아래로 내려간다. 좌대가 땅에 닿으면 부처님께서 석굴암 밖으로 걸어나가신다. 석굴암 입구에 도착한 부처님께서 오른 손을 들자 업 지순가락에서 빛이 나온다. 이 빛은 다시 해인사 장경각안으로 쏘아지고 장경각 중앙의 촛불에 점화된다. 촛불에서

### 석굴암 본존불 모델... 불상·탑도 영상화 가상공간 전법... 활발한 법음 전파 기대

빛이 사방으로 방사되면 이 빛이 대장경판으로 들어간다. 상서로운 빛을 머금은 경관은 발광(發光)한 상태에서 서가에서 뛰어나오며, 궁중에서 현대불교 신문으로 변화된다. 상영 시간은 40초다.

'부다피아'가 올 초부터 제작을 시작해 첫선을 보인 '사이버 붓다'는 상호

가 석굴암 부처님에 비견될 정도로 원만하지는 못하지만, 점차 이를 보완해 완벽한 상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석굴암 내부의 부조(浮彫)와 해인사 장경각을 세밀한 부분까지 재현해 인터넷을 통해 석굴암과 고려대장경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원의 실장은 "앞으로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을 비롯한 불상과 다보탑, 석가탑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보급 성보를 입체영상으로 제작, 인터넷상에서 소개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불교 이벤트에 한국불교의 정보화 기술을 알리고 불교문화를 홍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를 '사이버 동자승' 등을 통해 영상과 함께 안내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양통신으로 영상과 음성을 활용한 다양한 불교 교육프로그램에 '사이버 캐릭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이버 붓다'의 출현은 또 다른 불교적인 인터넷 상의 네티즌들에게 법음을 전하는 가상공간의 본존불로서 사랑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사이버 스님' 등 '사이버 불교캐릭터'의 등장을 예고하는 신평탄으로서 불교 콘텐츠의 다양화에 많은 자극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과 같은 현실세계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터넷,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통신망 속에서는 존재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사이버 부처님'의 전법(傳法) 활동이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 어! 휴대폰에 법구경이 뜨네

본사 문자서비스

현대불교신문사는 6월 1일부터 '법구'와 '교계소식'을 핸드폰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본사 정보센터 부다피아는 최근 한글 텍스트를 핸드폰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문자전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영구 및 일반독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법구' 서비스는 경정구절을 40자까지, '교계소식' 서비스는 교계 뉴스를 각각 매일 제공해, 독자들의 관심과 신망을 다지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영구 구독자는 핸드폰으로, 일반 구독자는 전자우편으로 이 서비스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핸드폰의 경우 기존의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하며, 부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02)732-1520

webmaster@buddhapia.com

## 특특 튀는 부다피아 새 메뉴

### 상담코너 · 영문버전 · 뉴스속보 · 잡지정보 서비스

현대불교신문사 정보센터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가 '뉴스속보' '상담코너' '영문버전' '불교잡지' 서비스를 제공, 국내·외 불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 뉴스속보



교계 소식을 매일 실시간 제공하는 '뉴스속보 서비스'는 주간단위 보도라는 교계신문의 한계를 넘어 1일 속보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선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생생한 정보를 취합, 매일 업로딩(Uploading)하는 이 서비스는 교계 뉴스의 '신속성' '현장성' '정확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불자네트즌이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부다피아에 접속함과 동시에 제공된다.

#### 상담코너

'이용자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정보센터 부다피아



에서 최근 개설한 서비스 보드기사·건강·교육·법률·세무·인생·종교등 7개 분야에서 불자네트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가는 코너, 인생상담에는 대명스님(함마음선원장), 건강상담에는 이근후박사(이화여대 부속병원 신경과)와 이만성원장(영재한의원), 교리상담에는 조계종 포교원과 이재열법사(유마선원장), 교육상담에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법률상담에는 수원지법법조인불자회, 세무상담에는 한국세무사불자회, 종교상담에는 이경우원장(한국대종교연구원) 등이 각각 맡고 있다.

#### 영문버전

'영문버전 서비스'는 고승법어, 뉴스속보, 부처님 오신날축축 등의 코너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것, 외국인 불자들에게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는 아직까지 한정된 코너에서 제공되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 '고승법어' 코너에는 현재 승산스님 법문이 제공되며, 순차적으로 현대 고



승들의 법문도 제공될 예정이다. 영역은 불교번역자가 최윤정(48)씨가 맡았다. 최씨는 <부처님게 재물털면>(고려인·90년) <하공에 베풀 타고>(예하·91년) <바람이나 깃발이나>(법보출판·92년) 등을 번역했다.

#### 불교잡지



'불교잡지' 서비스에서는 교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월간잡지의 '목록'과 '내용'을 제공한다. 현재 <금강> <불광> <여성불교> <맑고향기롭게> 최근호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불자 네트즌의 컴퓨터로 다운로드(가져오기) 가능하다.

오종욱 기자(gbaou@buddhapia.com)

## 부다피어를 말한다

### 실시간 속보 인기 뉴욕교포 접속열풍

#### 미국 - 효원스님

뉴욕에 살고 있는 효원스님(상원사 주지, 前 뉴욕사암연합회장)이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고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에 접속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상원사 법회를 찾아온 교포신도들에게 고국의 불향을 전해주는 게 포교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뉴욕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10여개 한국사찰과 1만5천여명의 교포불자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의 '부다피아 열풍'은 '대단함' 그 자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 일본 - 사토기자

재일교포 2세 사토(佐藤孝雄·30·중외일보)기자는 부다피아 뉴스 속보에서 한국불교계의 대소사를 접점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교계신문 중외일보의 기자라는 직분에서도 부다피아 뉴스속보는 놓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사토기자는 "특히 지난해 조계종사태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사태 변화를 매일 상세히 접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또 교포 2세로서 한국어에 익숙하지만, 일본어버전 서비스도 개설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부다피아에 온 메일

△김정성님(kumjong@mos.com.np)=부처님의 고향, 네팔에서 부다피어를 통하여 한국불교의 소식을 접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미리아수녀(jh99@bahnnet.org)=조심스럽게 부다피어를 방문했습니다. 낯선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지만, 풍경소리와 목탁소리 그리고 푸른 한때음이 나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기운이 있는 곳이었습니.

△김진현(나우누리 대표이사·nowbud)=뉴스나 불교행사안내 코너를 통해 최신불교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어, 불자네트즌의 신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 10~30% 할인판매

### 본사 쇼핑몰 '물, 부다피아'

### 염주·서적등 1천여종 구비

가상공간에는 불교에 관한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 쇼핑몰이 있다.

현대불교신문사(대표 김광삼)가 만든 '물, 부다피아'(<http://mall.buddhapia.co.kr>)가 바로 그 곳. 여기에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상품을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곳은 향로, 염주 등 1천여종의 불교상품을 시종보다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상품 전시장은 염주, 발우 등을 판매하는 '불교용품'과 조형물, 탱화 등을 공급하는 '불교미술' '불교서적' 코너

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상가와 할인가, 상품 설명 등이 사진과 함께 제공된다. 또 '식물' 이외에 도자기, 목공예, 표구, 문방사우 등을 판매하는 '전통공예'와 '서화문구' 코너도 개설돼 있다.

상품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모든 상품을 품목과 가격별로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다.

회원에 가입하면 구입하는 상품의 3%를 적립해주고, 적립금이 3만원 이상 되면 누적 금액만으로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각종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은행계좌이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한 제품은 입금 후 7일 이내에 전국 어디든지 배달이 된다.

물, 부다피아는 교계소식, 해외 불교상품보기 등 불교 정보도 제공하며 네티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 불전 법당' '사람밥 소식' 등도 마련돼 있다.

